

## 소나무 讚辭와 부위별 藥用

李 錫 熙

소나무는 웅대(雄大)한 기상으로 거센 비바람과 북풍 한설에서 변함없이 푸르름을 지니는 강인(強忍)함과 오랜 세월동안 장생(長生)하는 나무이고 특히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여 사람과 동물들에게 맑고 좋은 공기를 숨쉬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목재와 뽕감으로 쓰이고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편한 서식처를 제공해 주며 부위별로는 다양한 약재(藥材)로 쓰이니 우리 사람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본인은 연년익수(延年益壽)를 추구하는 한의약업에 평생을 종사해 온 사람이라 이러한 소나무를 좋아하고 우거진 송림(松林) 아래를 거닐 때가 가장 심신(心身)이 상쾌함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이태백의 시(詩)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句節)을 소리내어 읊어보면 저절로 운치(韻致)가 더하게 되어 참으로 즐거웁다

松風 清襟心(송풍은 청금심이요)

石潭 洗尋耳(석담은 세심이라)

송림아래 옷깃을 스쳐 스며드는 맑고 서늘한 바람(공기)는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하고, 돌 못으로 고여 흐르는 맑고 맑은 물은 물가에서 소리만 들어도 귓속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옛날 유명했던 화가들 중에 이조말기의 이인문(李寅文)은 그림 전면(全面)을 덮은 송림사이로 계류(溪流)가 흐르고 그 옆 작은 평지에 세사람이 벗하여 한담(閑談)을 나누는 그림이 바로 이인문의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이고, 이경운(李慶胤)의 송단보월도(松壇步月圖), 이인상(李麟祥)의 송설도(松雪圖), 이상좌(李上佐)의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 등은 이조시대의 명화(名畫)로 알려져 있다.

이들 그림의 배경은 우거진 송림(松林), 낙락장송 눈덮인 소나무의 설경, 소나무가 있고 은은한 달빛이 있거나 송림 사이로 작은 계곡이 흐르고 그 옆 작은 평지에 몇 사람이 벗하여 한담을 나누다거나, 소나무 아래를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 등이다.

이러한 그림의 공통적인 배경은 소나무가 있어서 그림이 더욱 조화롭고 청정하고, 맑고 맑은仙境(仙境)같아서 깊이 있는 운치(韻致)를 더한다 할 것이다

이들 그림속의 사람들처럼 그 맑은 공기를 숨쉬며 세상의 모든 시름 다 버리고 아무런 욕심없이 신선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추구하는 장생(長生)의 방도가 아닐런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 인생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자 하며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갈망하고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형왕(荊王)에게 불사약(不死藥)을 바쳤다. 그런데 그 약을 전달 하던 관리(官吏)가 욕심이 생겨 불사약을 자신이 먹어 버렸다. 연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형왕이 크게 노하여 불사약을 훔쳐먹은 관리를 잡아다가 처형하려 하였다 이 때 죽음을 당하게 된 그가 형장에 서서 말하기를 「제기랄, 죽지않는 불사약이라 하기에 훔쳐 먹었더니 그 약을 먹고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약(死藥)인가 보다」하고 중얼거렸다. 이말을 들은 형왕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생(永生)하는 불사약은 존재하는 것일까? 만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 소나무의 부위별 약용(藥用)

소나무는 상록교목으로 금송(金松, 金綱松) 해송(海松) 나한송(羅漢松) 산송(山松) 등의 종류가 있고 부위별 약용은 송자인(松子仁) 송엽(松葉) 송목피(松木皮) 송유지(松油脂, 松脂, 松油) 송화(松花, 松藥) 송화석(松化石) 송황(松黃) 복령(茯苓) 등의 약용이 있다.

(1) 송자인(松子仁) . 소나무의 씨로 잣알 크기만 하고 심폐자윤(心肺滋潤) 대장기능조절약(大腸機能調節藥)으로 쓰인다.

× 송자죽(松子粥)은 잣죽처럼 끓여서 먹으며 강장식(強壯食)으로 알려져 있다.

(2) 송엽(松葉) . 심열해소(心熱解消) 심장편안(心臟便安)을 위해 쓰이고 생식하는 사람들의 식용(食用)이 된다.

(3) 송목피(松木皮) : 종양(腫瘍) 암(癌)에 응용하고 지혈(止血)의 효능이 있어서 외상의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 소나무 讚辭와 부위별 藥用

× 왜정 말기에 곡식은 공출로 빼앗기고 식량이 없어서 소나무 외피를 벗겨 내고 내피(內皮)를 벗겨 모아 찌서(익혀서) 떡을 만들어 대용식 또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였다.

(4) 송피고(松皮膏) · 큰 소나무의 속 껍질을 벗겨 모아 폭 고와서 익히면 옷(漆) 색처럼 검게 되었다가 계속 고면 시간이 지나서 호박색으로 변하면서 좋은 향기를 풍기는 먹는 고약(膏藥)이 되며 이것은 폐결핵의 각혈(咯血) 토혈(吐血), 기침, 빈혈, 통경약(通經藥) 등으로 쓰인다

(5) 송유지(松油脂, 松脂, 松油) · 송유지에 백반가루를 혼합하여 피부약, 음약 등으로 쓰였다

(6) 송화(松花, 松藥) : 소나무꽃이니 지혈의 작용과 활혈의 작용이 있고 심폐자윤(心肺滋潤) 등에 쓴다.

× 옛날에는 떡고물로 하여 먹기도 하였다고 하며 이는 상초에 열을 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과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7) 송화석(松化石) · 노송이 꺾어져 흐르는 물과 토사(土砂)에 묻혀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면 화석(化石)이 될 수도 있다 송화석은 상사병(相思病) 치료용 명약(名藥)이다

(8) 송황(松黃) 송화꽃이 땅에 떨어져 묻혀져서 흙속에 묻힌 것이 4~5월의 비바람(風雨)을 만나면 환경조건에 따라서 버섯처럼(큰 것은 계란크기 정도) 뿌리없이 땅위로 솟아난다. 맛을 달고 독이 없으며(味甘無毒) 생진거담(生津祛痰) 소변불금(小便不禁)에 쓴다

(9) 복령(茯苓) : 큰 소나무를 자르고 나면 살아있는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땅속에서 묻혀져 형성된 것이다. 감초와 더불어 많이 쓰이는 한약재이며 백복령과 적복령, 복령피 등으로 구분하여 쓴다

× 성상은 평범하고 맛은 담담하며 백복령은 담연(痰涎)의 치료와 모든 구멍의 기(氣)를 통하게 한다. 적복령은 수분을 잘 통하게 하며 복령피는 종을 치료하고 수분이 잘 통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10) 송화단(松花丹, 松藥丹) · 송화, 지각, 독활, 방풍 등 네가지를 각 동량(同量)을 제분하여 환을 만들어 구루병의 치료약으로 쓴다.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12번지 세종당한약방 ☎ 055-336-4664)